

# 미국대학 입학심사제도의 한국적 함의

2009. 11. 05. (목) | 신의항(서울대)

\* 이 글은 한동대학교 주최로 2009년 6월 19일에 개최된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공정성" 주제의 워크숍의 토론문으로 준비하였다

대학입학제도와 관련된 정책의 개정이나 신설은 한국 사회 전반의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고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최근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의 확산도 예외가 아니다.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언론 보도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의 해결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발제문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공정성' 원칙의 재해석"에서 논의된 중요한 개념과 접근방법들에 관해서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의 실천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첫째, 미국 대학에서는 입학사정 과정에 입학사정관 이외에도 학장, 교수, 학생 등 다른 집단을 포함시키고 사정 원칙을 분명하게 세움으로써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대학의 경우 입학지원자의 심사와 입학 허가 결정은 전적으로 교수위원회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대학마다 교수로 구성된 "학부입학위원회(Committee on Undergraduate Admissions)"가 조직되어 있다.<sup>1)</sup> 입학 업무를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입학관리학장"은 학부입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입학관리학장은 "입학관리처(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를 이끌며 입학관리처에는 부학장과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들이 있다. 입학관리처의 인력 규모는 대학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입학사정과정에 교수와 입학사정관은 물론 학부생을 사정위원으로 참여시킨다. 입학사정과정에 재학생을 참여시킴으로써 "또래평가(peer evaluation)"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반영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워싱턴 시(Washington D.C.) 소재 조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ersity)의 입학관리처에는 14명의 입학사정관이 있고, 2007년 총학부생 수는 6,630명이며, 2008년의 입학지원자 총 수는 18,696명이었고 이 중 3,514(18.8%)명에게 입학 허가가 주어졌다.<sup>2)</sup> 조지타운 대학에는 9개의 입학심사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교수 1인, 학장 1인, 학생 1인, 그리고 입학관리처 입학사정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원은 SAT 점수, 내신성적, 과외활동 그리고 무형의 요소들(intangibles)을 고려하여 평가한다.<sup>3)</sup> 위원회는 개별 입학지원자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위원의 평점이 2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원들의 평점을 합계한 총점이 최종 심사의 기준이 된다.<sup>4)</sup>

주1) Tufts University. 2008. Committee on Undergraduate Admission and Financial Aid Report for AY 2007-08.

Chang, John Dorian. "College Admissions Offices: Who and How."

<http://www.hopelesstoharvard.com/ivy-league-schools/college-admissions-offices.who-and-how/>  
Farvell, Elizabeth F. "Behind the Scenes, Admissions Offices Conquer Mounds of Mail."

<http://Chronicle.com/weekly/v54/i20/20a02001.htm>.

주2) <http://uadmissions.georgetown.edu/applying-firstyear-sdprofile.cfm>.

주3) King, Courtney. and Devyn Fomer. 2003. "Inside Georgetown's Admissions Deliberations: As Georgetown Weighs Early Applications, ABCNEWS Sits In." February 1, 2003.

<http://abcnews.go.com/print?id=128422>.

주4) 같은 곳.

둘째, 미국에서도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는 특히 대학입학 심사과정에서 학생의 인종, 종족,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지역 등의 특성을 “다양성 (diversity)”의 측면에서 고려하는 정책에 대한 의문과 연관되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미국연방대법원은 미시간 대학의 학부 입학지원자 심사에서 흑인, 히스패닉 등의 소수 민족 출신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 미시간 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소수 민족 출신 배경을 입학 심사에서 고려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인종 및 민족적 배경에 대한 고려는 맥락에 따라 합법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sup>5)</sup>

그리고 2009년 2월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이사회는 2012년 신입생부터 입학 요건을 수정하는 안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sup>6)</sup> 이 수정안의 중요한 내용은 SAT의 2개의 주제 시험성적을 제출하는 것을 없애고 출신고교 졸업학년의 상위 9%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 허가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수정안이 적용되면 백인 입학생의 비율은 현재의 34%에서 44%로, 히스패닉계는 19%에서 22%, 흑인은 4%에서 5%로 증가하는 반면, 아시아계는 36%에서 29%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 제시되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은 이 입학기준의 수정안이 충분한 공지와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의회 소위원회와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고 비판하며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7)</sup>

캘리포니아 대학입학제도와 관련하여 1996년 주민총투표로 “제안209(Proposition 209)”가 통과된 바, 이 제안은 대학입학사정에서 “Affirmative Action” 원칙을 적용하여 흑인 및 히스패닉계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8)</sup> 이후 아시아계의 입학 비율은 급상승했고 흑인 및 백인 학생 비율은 감소하였다. 2009년 2월 캘리포니아 대학 총이사회의 수정안은 1996년 이후 나타난 아시아계 학생 비율의 급증 추세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대학 입학지원자심사과정에서 “차별철폐조처(Affirmative Action)”, 주의 조례 등과 같은 법적인 지침, 개별 대학 자체의 필요와 이해가 반영되는데 이러한 고려가 입학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려는 노력과 상충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주5) National Public Radio. 2003. "Split Ruling on Affirmative Action: High Court Rules on Race as Factor in University Admissions." NPR, June 23, 2003.

<http://www.npr.org/news/specials/michigan>

주6) Chea, Terence. 2009. "New UC Admissions Policy Angers Asian-Americans." San Francisco Chronicle, April 24, 2009.

주7) 같은 논문.

주8) <http://vote96.sos.ca.gov/BP/209.htm>

셋째, 미국의 많은 유수 대학들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 수준 이외에도 학생들이 가진 특성과 자질이 대학과 잘 맞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입학사정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결부되기도 한다.

미국의 많은 유수 대학들은 입학지원자 심사과정에서 SAT, 내신성적과 더불어 개별 학생의 한 개인으로서의 전체적 특성과 자질을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원자가 입학했을 때 해당 대학에 어떤 고유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원자와 대학이 지향하는 바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가, 지원자의 특성이 해당 대학의 학생 구성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고 보고되었다.<sup>9)</sup>

예컨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등 최상위급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과 학업 능력 차이는 매우 근소하므로 성적과 학업 능력 이외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입학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0)</sup> 통상 지원자의 과외활동, 추천서, 에세이, 인터뷰, 예체능 특기 등이 평가에 포함된다. 이들 우수 대학들에서 SAT, 고등학교 때의 성적, 과외활동 추천서, 에세이, 인터뷰, 특기 등의 고려대상 요소들의 상대적 비중은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예컨대 하버드는 과외활동은 “매우 중요함(very important)”, 인터뷰가 “중요함(important)”으로 보고된 반면, 스탠포드는 과외활동이 중요함, 인터뷰는 “고려하지 않음(Not Considered)”으로 나타났다.<sup>12)</sup> 이들 우수대학들에 선발된 학생은 그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되며, 학생 그룹의 일원으로 학생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서로에게 학습 및 캠퍼스 커뮤니티 생활의 도움을 주고 받으며 배울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우수 대학들의 자주 인용하는 “우리 대학에 잘 맞는(fit)”,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best match)” 학생을 선발한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제 발표에서 지적한 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에 평가 주체의 필요를 선발 기준으로 적극 개입시키는” 경우를 미국 우수 대학들의 입학사정과정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발표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의 평가 기준은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우수 대학들의 입학 경쟁률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특수성과 평가자의 필요를 반영하는 대학 입학 선발 기준과 입학사정관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다니엘 골든(Daniel Golden)은 2006년 출간된 “입학의 가격(The Price of Admission)”이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 우수 대학 신입생의 10~20%가 졸업생의 자녀이고 기여입학생의 비율은 1~5%, 체육특기자는 5~10%, 그리고 교수의 자녀가 1~3%를 점유한다고 보고했다.<sup>13)</sup> 따라서 이 그룹의 신입생이 총 신입생 수의 1/3을 점유하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대학과의 연계가 없었다면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4)</sup>

---

주9) <http://questions.blogs.nytimes.com/2008/12/17/qa-college-admissions/?scp=4&sq=college>

주10) 같은 곳.

주11) New York Times. 2006. "Relativ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in Admission Decisions." New York Time, January 8, 2006.

[http://www.nytimes.com/imagepages/2006/01/08/education/edlife/data.1.graphic.html?](http://www.nytimes.com/imagepages/2006/01/08/education/edlife/data.1.graphic.html?scp=1&sq=ad)

[scp=1&sq=ad.](http://www.nytimes.com/imagepages/2006/01/08/education/edlife/data.1.graphic.html?scp=1&sq=ad)

주12) 같은 곳.

주13) Golden, Daniel. 2006. The Price of Admission: How America's Ruling Class Buys Its Way into Elite Colleges and Who Gets Outside the Gates. New York: Random House.

Bernhard, Stephanie. 2006. "Golden on the Ethics of College Admissions." The Brown Daily Herald, September 29, 2006.

주14) 같은 곳.

넷째, 미국 대학들 역시 입학사정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1차심사과정에서 최소 2인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개별지원자 파일을 검토하며, 입학사정관은 한 지역 내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지원자 파일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 입학사정관들의 개인적 편견

이 심사에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파일 심사의 "규범화 훈련(norming training)"을 반드시 이 수하게 하며, 동일한 파일에 대한 평가의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한다.<sup>15)</sup> 앞에서 언급한 바 입학사정위원회에 입학사정관 이외에, 교수위원, 학장위원, 그리고 학생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대학구성원들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학 주체의 필요(institutional interests)"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하는 한편, "개인적 편견(personal biases)"이 개입되지 않게 한다.<sup>16)</sup>

미국 대학은 입학사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게 입학심사 전 과정을 참여 관찰,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지타운 대학은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국의 3대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하나인 ABC NEWS의 기자 두 명으로 하여금 입학 심사의 전 과정을 참여,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ABC NEWS는 5번의 보도를 한 시리즈로 방영한 바 있다.<sup>17)</sup> 그리고 주간지 TIME은 2000년 10월부터 코넬 대학, 볼드윈 대학과 라이스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을 직접 관찰 취재했다.<sup>18)</sup> 뉴욕타임즈의 스타인버그(Jacques Steinberg) 교육 전문기자는 코네티컷 주의 웨슬리안 대학(Wesleyan University)의 입학처장 및 입학심사위원회를 8개월 간 밀착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허가받고 웨슬리안 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설명회 단계에서부터 최종 입학 허가 통보까지의 전 과정을 취재한 바 있다.<sup>19)</sup>

이들 언론매체가 참여관찰, 취재를 통해 내린 공통적인 결론은 취재 대상 대학들의 입학사정과정의 공정하며 투명하다는 사실이었다. 기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입학사정관들이 개별파일을 심사하는 자세가 예상 밖으로 전문적인 수준이었고,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인버그에 따르면, 입학사정관들은 입학심사과정에서 엄청난 지원자의 파일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원자들이 가진 특성들의 격차가 근소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상류층 가정 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경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지원자보다 비교적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타인버그는 인종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인 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능력 위주의 원칙(meritocracy)에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sup>20)</sup>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사회 라는 구조적 특성, 균등한 기회부여, 민주적 사회통합의 가치가 대학입학심사과정에 반영되었다고 믿는다. 미국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는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고 확실하게 정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높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 강화를 위한 법적, 학교조직차원의 지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선발에서 공정성과 함께 타당성을 중요시 하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 대학이 학생선발의 과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립하여 어떠한 비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

주15) <http://questions.blogs.nytimes.com/2008/12/17/qa-college-admissions/?scp=4&sq=college>.

주16) 같은 곳.

주17) King, Courtney. and Devyn Fomer. 2003. "Inside Georgetown's Admissions Deliberations: As Georgetown Weighs Early Applications, ABCNEWS Sits In." February 1, 2003.

주18) Morse, Jodie., Andrew Goldstein., and Flora Tartavovky. 2000. "Inside College Admissions." TIME, October 23, 2000.

<http://www.time.com/time/printout/0,8816,998276,00.html>.

주19) Steinberg, Jacques. 2003. The Gatekeepers: Inside the Admissions Process of a Premier College. New York: Penguin.

주20) 같은 곳.